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SEONNONGDAN History & Culture Park Museum

당선작 _ 노윤경 ^{정회원} · 한상범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주요용도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3,933㎡
건축면적	0㎡ (지상층 없음)
연면적	1,662.26㎡
건폐율	0% (지상층 없음)
용적률	0% (지상층 없음)
규모	지하 3층
발주처	동대문구청
설계담당	최재용, 김영진, 원명제

선농단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신농과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신성한 장소이었다. 또한 왕이 직접 행차하여 제사를 지내고, 친경례를 함으로써 백성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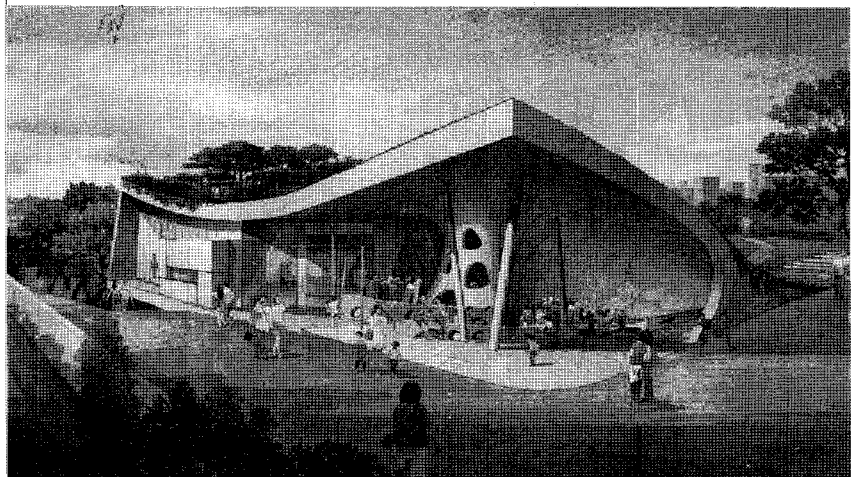
현재 이곳은 일제 강점기와 60~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되어 도시의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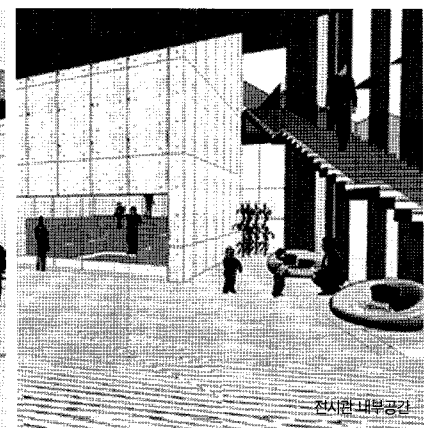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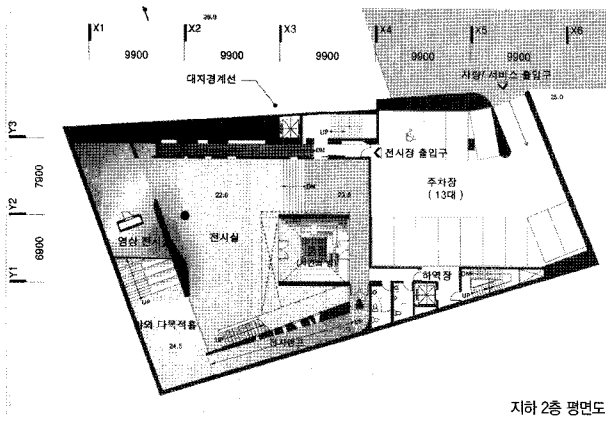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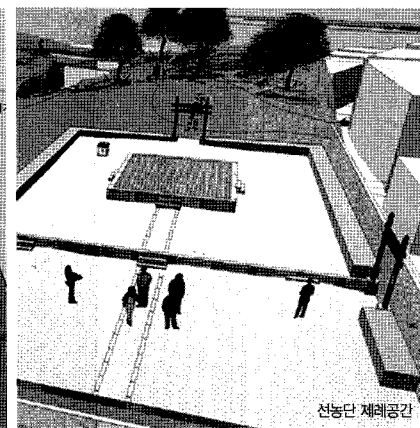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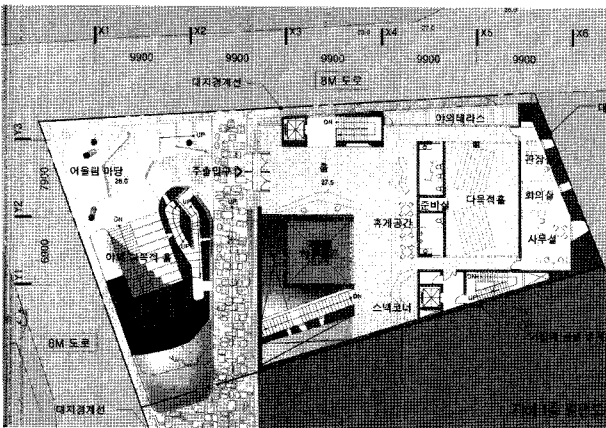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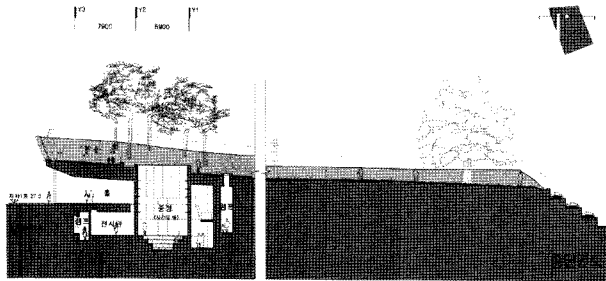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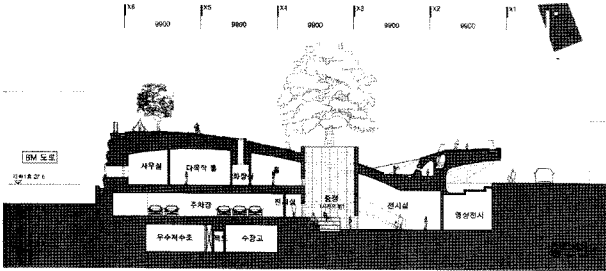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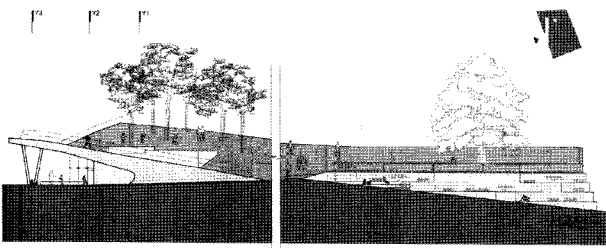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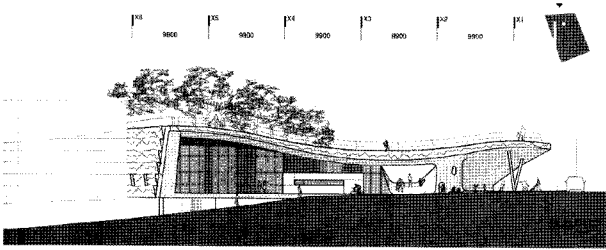
제례공간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지상은 최대한 훑으로 덮어 원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함으로써 사적(史跡)지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선농단의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훑으로 덮여진 지하에는 농사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건축적 공간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관람동선의 중앙에 위치한 '시간의 방'이라 이름 지어진 중정은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숨통'으로 작동되도록 하였으며, 중정 벽면에 설치된 이크릴봉은 24절기와 사계절과 동서남북의 방위를 상징하도록 하였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내부에서 느끼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행위가 시간을 다스리는 행위임을 암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들어 올려진 전시관 진입부 전면마당에 놓인 '상상의 계단'을 중심으로 곡물 바구니아이트, 수수술 술래잡기, 숯박꼭질 놀이, 새싹심기, 씨앗 밟기 놀이 등의 시설물을 계획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농사에 관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되는 선농단과 전시관, 어린이놀이터는 선농단 역사공원과 연계된 지역 커뮤니티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열린 공공장소로서 새로이 탄생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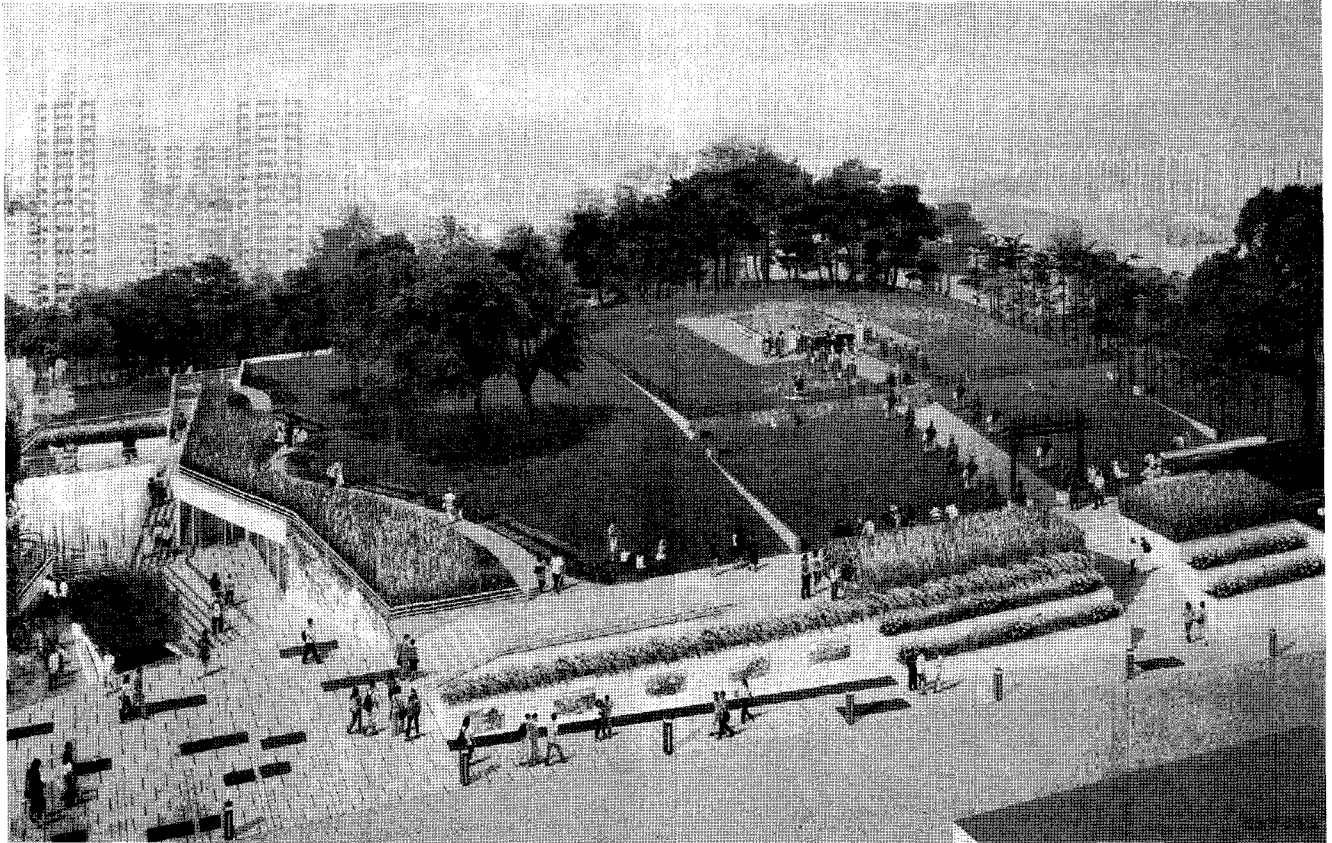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커뮤니티공간

전시관 내부공간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SEONNONGDAN History & Culture Park Museum

우수작_정정훈 정회원

인동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주요용도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3,933㎡
건축면적	181.48㎡
연면적	1,530㎡
건폐율	4.61%
용적률	3.66%
규모	지하 2층, 지상 1층
설계담당	신주희, 박보람(인동) 박명권, 최은경(주,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현상설계 지침에서 제시한 공모목적과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안의 목적은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목적으로 선농단을 정비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전통 농경문화 전승의 장과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서 역사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왕이 선농제향을 지내는 의미는 풍년을 기원하여 그 풍요와 평화가 만백성에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염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본 계획안의 주안점은 「조선시대와 20세기초 식민사회 및 해방후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농제향의 역사와 제단의 위치, 좁혀진 부지 등의 변형된 선농단의 원형을 재해석하여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현재의 우리시대에도 조화할 수 있는 역사공원과 어린이공원, 농경문화 전시관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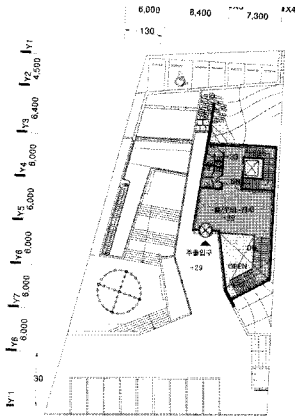
본 계획안의 계획 방향은 첫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나는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역사 유적으로 선농단의 형식을 고증하여 가능한 현재의 부지 조건하에 원형 회복을 시도하고 선농제향을 위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례공간과 행사에서 왕이 친경례할 수 있는 적전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역사·문화적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전통문화·놀이 체험공간 및 농경문화 전시공간을 계획·조성하고, 셋째, 농업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시풍속의 체험과 더불어 땅으로부터 얻은 생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계획안은 도시로부터 역사공원으로 편리하게 다가가기와 주변과 적절한 관계 맺기를 의도한다. 접근 가능한 도로로부터는 경사진 높이·단 차이 등을 없애고 다양한 레벨에서 자연스럽게 역사공원과 전시관의 1층, 지하, 2층 등의 레벨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접한 주택지로부터는 수목에 의한 조경공간이 Buffer Zone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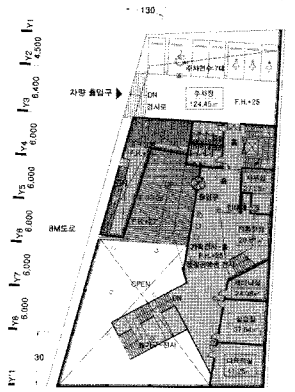
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본 계획안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지침과 법규의 어린이공원 건폐율 5%(197㎡ 미만)를 지키는 것이었다. 경사진 대지를 고려하여도, 지표면 위 1m이상(지하층과 관계없음)의 부분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에 계획할 수밖에 없고, 건물의 입면이 지상으로 거의 올라올 수 없었다. 지하의 공간에는 파난과 환기, 채광을 위하여 선크 공간의 활용이 필요했다. 또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어린이공원 부지)의 면적이 1,239㎡로서 그 경계에서 구조적인 이유로 이격 후 남는 한 층의 최대 면적은 대략 1,000㎡ 이내로써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은 600㎡ 내외로써 협소한 전시관이 되므로, 내부의 이용 가능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모으고, 상/하층 내부를 가능한 크게 OPEN 하여야 어느 정도 전시와 커뮤니티가 가능한 규모(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의 넓이와 높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축면적(건폐율)이라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한 변수이자 매우 고민했던 점으로 검토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당선작도 그렇게 했는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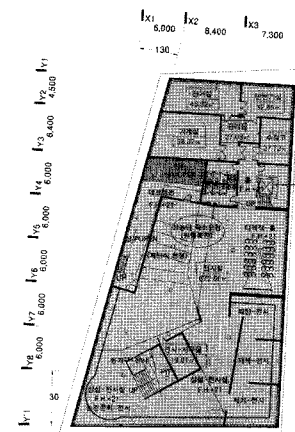
“그러므로 반드시 경계선을 살살이 답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크 데리다, 「의미 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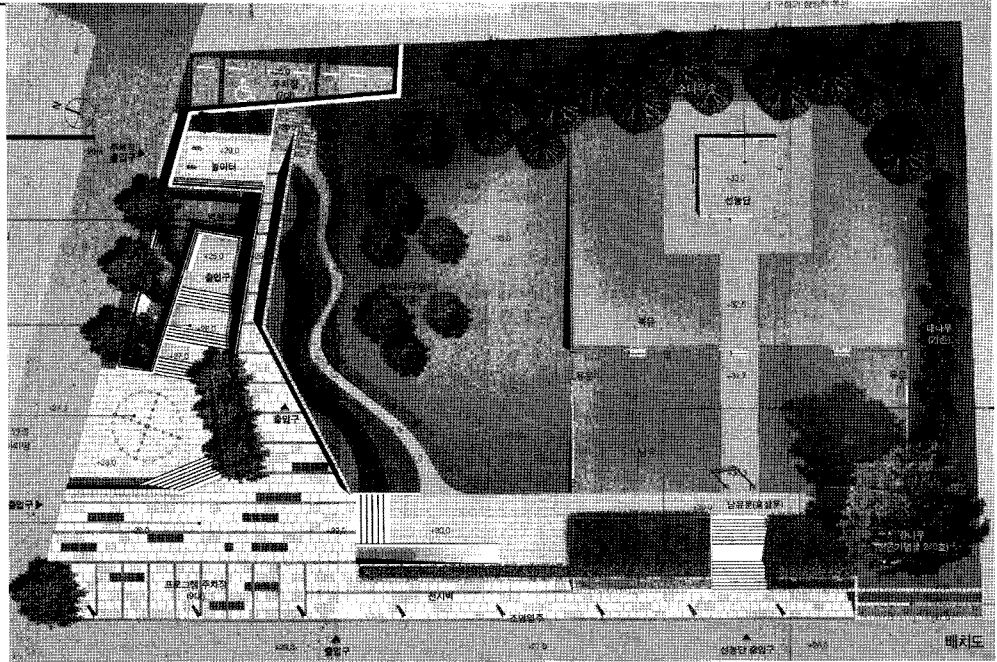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배치도

